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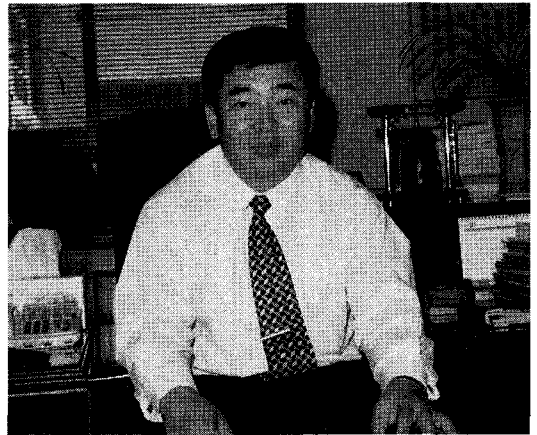
(주) 부림기공

환경보호, 복원을 위한 사업우선

‘사람은 환경을 지켜야 한다’

회사연혁

년월일	내 용	관련기관
1990. 11. 30	건강 엔지니어링 설립	강서세무서
1991. 1. 20.	주한미군 계약처 등록	U.S.A, K.C.A
1991. 2. 5.	국방과학 연구소 군납 등록	ADD
1991. 4. 10.	미공군 사령부 군납업 등록	오산 AB
1991. 5. 15	특허 출원(소각로)출원 번호 8313호	특허청장
1991. 6. 10.	실용실안 등록 우선심사 추천(소각로) 문서번호기술 317-1681	환경부 장관
1991. 10. 1.	김포공장 이전준공 (대지 800坪, 건평 400坪)	김포군청
1992. 10. 13.	(주)부림기공으로 법인 전환	인천지원 (김포 등기소)
1992. 12. 15.	무역업 등록허가 취득	경기도지사
1993. 3. 3.	소각로 기술제휴	VULCAN
1993. 3. 8.	송강기 보수업 허가 등록	경기도지사
1993. 4. 27.	실용실안 등록출원(소각로) 출원 번호 6752호	특허청장
1993. 6. 4.	군납업 보안측정 유자격 업체 지정 제2431467호	기무사
1993. 6. 5.	실용실안 등록 우선심사(양복동교반식 건류 가스 소각로) 문서번호 기술 67730-1576	환경부 장관
1993. 7. 6.	상표등록 출원 제 23188호	특허청
1993. 7. 6.	서비스표 등록출원 제 3797호	특허청
1993. 11. 15.	실용실안등록(소각로) 등록번호 076109호	특허청
1993. 12. 24.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록 제336호	환경청
1995. 3.	ISO 9001 인증취득 작업시작	
1995. 4. 1.	특정폐기물 소각설비/ 대기오염방지기기 설계기술 계약	한국기계연구원
1996. 3. 6.	소형소각로 연구개발 (설계지원 & 성능평가)	생산기술 연구원
1996. 8.	한국산업로 공업협동조합 가입	한국산업로공업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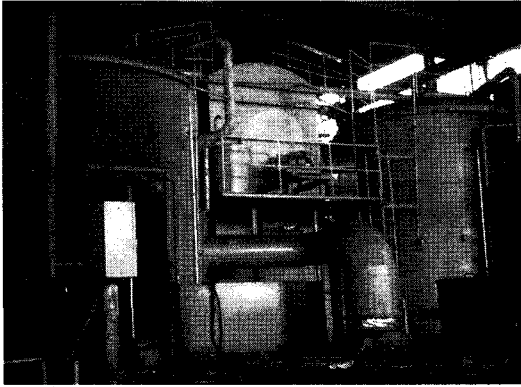


▲김왕렬 대표이사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시 되었던 것은 의식주였으며, 지금도 부인할 수 없다. 90년대 들어 여기에 환경이라는 것이 추가되면서 지구상의 커다란 이슈로 등장했고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것은 물론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대에 편승한 상업적인 발상이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그저 제조업이 좋았고 어린시절 뛰놀고 느꼈던 그대로의 환경을 동경, 환경사업에 뛰어들어 굴지의 업체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있다.

‘협동·성실·창의’라는 사훈을 내걸고 제대로 된 물건으로 환경을 복원한다는 뜻심으로 일



▲ 일반 폐기물, 액상 및 반고상 폐기물등을 소각시키고 폐기물 배출업체의 특성 및 폐기물 성상에 따라 설계, 제작돼 설비의 수명은 물론 높은 연소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연소식 고정상 소각로(원형 스토커형)

관하고 있는 (주)부림기공(대표이사 김왕렬)이 그 곳이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한국수출산업공단 제3 공단에 자리하고 있는 부림기공은 1990년 11월 건양엔지니어링을 모체로 꾸준한 발전과 변신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회사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은 크게 환경사업과 대미(對美)사업으로 나눌수 있다.

환경사업은 환경사업부문의 설계, 제작, 시공, 보수를 맡고 있는데 산업 및 일반폐기물 소각시스템, 대기오염방지시설, 열교환기 및 폐열보일러, 파쇄기 및 압축기를 제작하고 관리하고 있다.

대미사업부는 각종 장비 및 시설보수, 유지관리에 나서고 있는데 승강기, 공조기 및 GENERATOR COMPRESSOR, 차량 및 증장비, 위생기기, 환풍시설 및 방지설비를 공급한다.

특히 대미사업부 및 환경사업부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에 지사를 두고 선진국의 기술정보 수집 및 수출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림기공은 제품의 판매에 치중하기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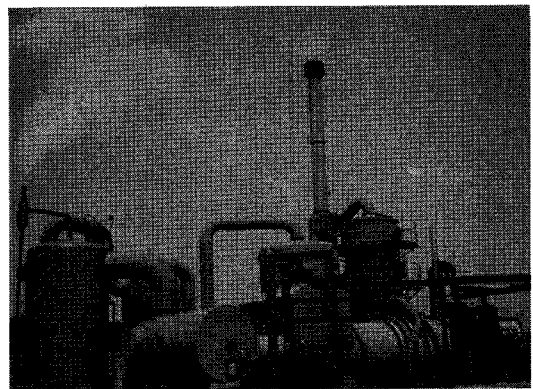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의 양산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PE, PP 등 주변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샘플을 수집, 머지않아 실용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유리 및 종이류도 재자원화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이를 위해 자원 리사이클의 선진국인 독일의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중에 있는데 올해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본격 사업에 나설 계획이어서 플라스틱재질은 물론 종이, 유리류의 재활용산업에 활력을 불어 일으킬 전망이다.

소각로를 제작, 보급하고 있는 부림기공은 소각은 폐기물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우선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소각하는 장비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라 밝히고 있다.



▲ 국내 폐기물 성상에 맞도록 개발되었고, 기존 Rotary Kiln 및 Stoker Type의 문제점을 보완한 소각로로 고발열량 폐기물과 높은 함수율의 폐기물 처리, 재처리 및 투입장치 등 모든 기능을 자동화한 R.H.M.C구동형 소각로

(표 1) 인원 현황

구분	환경부	태미부	공장	물관부	관리부
임원	4	1	1	1	1
관리직	23	11	3	2	3
생산직	38	10	10	16	2
계	65	22	14	19	5

환경보호에 대한 소신만을 갖다보니 초창기 막대한 자금을 소요하기도 했다는 김 사장은 “그동안 환경정책이 활발해져 분리수거 등은 잘 돼고 있으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재활용정책의 실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올해 부림의 또다른 목적은 ISO 9000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다.

「부림의노력 ISO 9000」

「부림의성공 ISO 9000」

‘우리가 지킨 교육시간 ISO 9000 인증획득 앞 당긴다.’

표어가 나타내듯이 소각로업계 처음으로 ISO 9000을 인증하기 위해 1년여를 투자하고 준비, 이달 말경에는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부림기공은 업계 선두주자로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환경보호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각이 100%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역에 따라 소각방법이 달라야 하고 발생하는 유기물의 종류도 틀리다는 것이 김 사장의 말이다. 따라서 지역, 종류에 따른 연구 조사를 거쳐 특성에 맞는 소각로를 제작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림은 이같은 철저한 관리로 산업기술연구소의 성능시험 결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놓

고 특허를 신청해 놓고 있다.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김 사장이 내세우는 모토이다.

“유저측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어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라는 짐을 지워주는 것으로 안다”는 김 사장은 “환경설비에 대한 인식이 정책의 강약에 따라 좌우되서는 안돼고 양식있는 올바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의 이같은 생각은 88년부터 외국의 환경정책을 접하면서 소각, 매립, 침출수문제 등을 공부하면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갈수록 어렵고 배워도 어려운 실정인데 정책자체가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면이 많아 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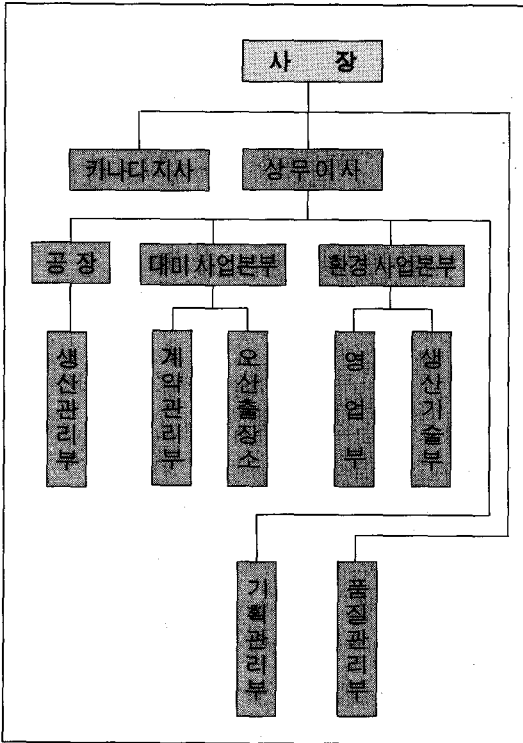
주위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환경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김 사장은 업계에 다친 인력난, 자금난 등 구조적 문제에 부딪쳐 회의를 느끼기도 했지만 북미지역의 자연보존상태에 반해 우리나라도 누군가 시작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일을 지속하게 했다고 밝혔다.

부림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외국의 좋은 기술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 안정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젊음의 패기와 미래를 볼 줄 아는 부림은 이제 개인기업이 아닌 직원들의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 김 사장이 직원들에게 회사를 맞기고 자신도 경영에서 물러나 연구에 몰두하고 전문 경영인을 맞이하여 새롭게 일신을 꾀할 계획이다.

소각로업체로는 드물게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부림기공은 매년 매출이 20~30%정도

[표2] 기구조직



신장하고 있다. 소각로 사업에서만 40~50억원, 기타, 이미 올해 목표치를 달성했고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과 기술개발로 20%이상의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어려운 일일수록 맞서 헤쳐나갑니다. 최선을 다하다보면 즐거움도 따릅니다.”

김 사장은 평탄한 것보다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개척의 정신으로 일관해 왔고 앞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노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하는 자체를 즐겁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후회없는 자세로 임한다는 것이 좌우명으로 그의 생활을 잘 집약해 놓은 문구들이다.

“요즘 신세대들은 개성이 강하고 자기주장을

할 줄 아는 것은 좋으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김 사장은 강조한다.

김 사장은 관료공무원은 전문성이 적고 인식이 뒤져 일관성있고 전문성있는 전문가가 세분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사장은 동종 업계에 대한 당부의 말로 “업계가 영세하다 보니 가격의 질낮은 경쟁으로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며 “업체간 모델기준에 맞게 형식승인제를 도입, 자격을 갖춘 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형식승인제가 필요한 이유는 규제가 없을 경우 저질의 제품은 또다른 폐기물이 돼 더욱 큰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경제성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품은 그대로 인정해 줄줄이는 자세 또한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수년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한 질 좋은 제품도 대기업의 외면과 외제선호가 아직도 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발전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그는 “중소기업이 근간이 된 산업구조로 변화되는 것이 안정된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산업론을 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가지 목적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한다. 이 가운데 특별한 소신을 갖고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 국가적인 견지에서 보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다.

부림기공은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준다는 신념으로 우리나라 환경보존에 앞장서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 ☐

오선진 기자